

당신의 문질(文質)은 빈빈(彬彬) 하십니까?

김 태 정(유니클로 빠)

WARNING!

Stereogram_Wear 을 보고 번뜩 떠오른 생각들을 차곡차곡 쟁여 두었다가 두서없이 써내려간 글입니다. 작품이 선사한 폭풍 감동의 근원을 찾아 헤메는, 작품 해설서 류의 글을 원하는 감상자가 읽으면 부아가 치밀 수도 있습니다.

항온동물 중에 인간처럼 헤어리하지 않은 녀석이 있나? 굳이 들춰내자면 기껏해야 고래류 정도 일 텐데, 이 친구들은 바다 속에 사는 녀석들이니까 일단 예외로 두자. 주로 땅 위에서 먹거리를 해결하고 공기 중에서 호흡하는 항온녀석들 중에는 아마도 인간의 몸뚱이가 가장 민둥민둥하지 않나 싶다. 항온동물은, 항온(恒溫), 그 말처럼 일정한 체온 유지가 목숨과 직결되는 동물들이다. 그래서 녀석들 절대다수는 북슬북슬한 털로 온도를 유지 관리한다. 허나 인간은 다르다. 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루다가 겁나 매끈매끈하다.

인간에게 원래 털이 있다 없어졌는지, 아니면 애초에 털이 없었는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전후관계야 어찌됐든, 털과 관련해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했든 말았든 간에, No 털 No 탈, 요 민둥민둥한 인간은 털 없이도 별 탈 없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털 없음’은 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체온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증표다. 거대한 자연의 섭리에 뼈딱선 한 번 타보겠다는 수줍은 반항이다. 사족을 달자면, 공상과학영화 같은 거 봐봐! 인간보다 더욱 진보된 문명을 자랑하는 외계생명체들에겐 한 오라기 털도 없지 않더냐! 좌우지간에 자연의 재료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아는 인간의 탁월한 능력은 무겁고, 먼지 끼고, 냄새나고, 벌레 득시글거리는 털들과의 이별을 가능토록 했다. 그러니까 굳이 사시사철 주야장천 털을 달고 살지 않아도, 인간은 저 거추장스럽고 비위생적인 털의 역할을 대신해 줄 녀석, 날씨와 편리에 따라 탈착이 자유로운 녀석을 만들어 낸 거다.

그렇다! 옷이다! 옷은 인간 탈털화(?)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이자 문명화의 상징이다. 바꿔 이야기하자면, 털이 온 몸을 뒤덮은 저 미개한 짐승들에겐 옷 따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가끔 옷을 입고 다니는 개나 고양이가 있긴 하지만 지들이 스스로 챙겨 입은 것은 아니니 패스! 오로지 인간만이 옷을 입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인간다운 외양을 완성한다. 고로 옷은 인간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마련한 가장 원초적인 인공의 산물임과 동시에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명징하게 현현하는 구분점이다. 예서 더 나아가 옷은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 사회 안에서 또 다른 차원의 역할을 지니게 된다.

문질빈빈(文質彬彬)! 문과 질의 조화로운 모습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흔히들 글쓰기에 있어 내용과 형식의 조화로우름을 강조한 공자의 가르침 정도로 이 성어를 이야기 하곤 한다. 하지만 문질에 대한 공자의 함의는 단순히 글쓰기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공자는 요순(堯舜)시대를 논하며 “빛나도다! 그 문장이여!(煥乎其有文章)”라 했고, 서주(西周)시대를 “그 문이 찬란하도다.(郁郁乎文哉)”라 칭송했다. 공자는 요순과 서주를 이상적인 사회의 전형으로 꼽았는데, 이 두 시절을 두고 문(文)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그는 이때를 문과 질이 매우 조화로운 문질빈빈의 시절로 여겼다.

한자 쓰고 공자님 들먹이니까 말이 너무 어렵고 졸리다. 조금만 참자! 질(質)은 내적이며 비가시적이다. 뵈인가 하면, ‘오빠~! 뭐 하는 거야,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완존 저질이야!’에서

질이 바로 그 질이다. 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떠한 객체를 짐작할 수 있는 고유의 무엇과 관련이 있다. 반면 문(文)은 외적인 드러남이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조토 모르면서 조나) 이야기하는 ‘문화(文化)’는 내적 가치가 겉으로 드러나 인지와 공유가 가능한 무엇이 되었음을 이야기 한다. 고로 문은 가시적이고 질을 의미화해 내포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약속을 배경으로 한다.

그렇다면 공자가 이야기하는 문질이 조화롭고 질서가 바로 선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일단 질을 사람에게 대입해 보자. 질은 어떤 개인의 사람 됨됨이를 결정짓는 근본 요소다. 성품, 성격 등이 해당 되겠다. 하지만 민주가 뭔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춘추전국시대에는 이에 앞 선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 신분, 계층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문은? 글월 문(文)의 기원을 살펴보면, 상형자로 몸에 무늬를 그린 사람의 모습에서 유래한다. 그러니까, 문신(文身) 즉 사람이 ‘내가 누구다!’를 보이기 위해 자신의 몸뚱이를 이래저래 장식하던 것이 문의 기원이다. 조금 급하게 축약해 보자. 그러니까 군주는 군주답게, 선비는 선비답게, 농사꾼은 농사꾼답게 각자가 자신의 질에 맞는 문을 갖추고, 이를 통해 서로를 예(禮)로 대하는 사회가 공자가 이야기한 문질이 조화로운 사회다. 공자가 요순, 서주의 문을 찬미했음은 당시 사회의 위계질서가 가시적으로 딱딱딱! 명확히 드러나 상대를 인지하기 용이했음을 이야기한다. 인지의 용이함은 처신의 빠른 판단을 돕는다. 척보면 알고 짝 하면 짝짜쿵이다. 딱 보고 ‘어이쿠 대감나리~!’라며 머리를 조아려야 할지, ‘여봐라~! 네 이 늬~!’하며 성대에 스크래치를 내야할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눈치들 채셨겠지만, 이 눈부신 문의 한 가운데 의복, 옷이 있었다.

앞서 ‘옷은 인간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마련한 가장 원초적인 인공의 산물임과 동시에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명징하게 현현하는 구분점’이라 얘기했다. 허나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옷은 인간사회 안에서 서로를 구분하는 표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옷차림새를 살펴 상대의 신분을 가늠했고, 이에 걸맞게 행동했다. 단순히 털을 대신해 체온을 유지해주는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사회 계층을 더욱 명확하고 공고하게 만드는 기득권의 시각적 나팔수 노릇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일종의 군대 계급장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근대에 들어 핏줄 따라 흘러흘러 오던 신분, 이에 따른 사회 계층은 폭망의 길로 접어든다. 근대 철학의 만개, 산업화, 시민 사회의 성장 등은 사람들의 관념을 고고하게 유명하던 기득권의 신화를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린다. 결정타는 자본이다. 사회 위계질서에 자본이 개입되면서 일이 쪼까 거시기 해져부렸다. 우선 왕후장상의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은 편을 가지고 있느냐가 기득권의 일등 덕목으로 자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편만 가지고는 근대 이전의 신분처럼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기엔 뭔가 애매했다. 대충 이런 거다. 근대 이전, 귀족들은 노예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상하관계가 너무나 명확했고 일방적이었기에 그랬다. 하지만, 근대 이후,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눈치를 봐야한다. 협의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피고용자들이지만 광의에 있어 그들은 자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소비자들이다. 반대로 손님은 왕인지라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당당하다. 하지만 그들은 잠재적으로,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가 될 수 있다. 갑을갑을갑을이 돌고 돌고 돈다. 위 아래 위위 아래 위 아래 위위 아래가 자꾸만 흔들리게 된다.

근대 이후, 사람들은 저기 김아무개가 양반인지 상놈인지, 무슨 김씨 무슨 파 몇 대손인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됐다. 전체에 놀려 숨죽이던 개인이 고개를 들었고 사람들은 드러내 놓고 개성을 갈망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근대 계급장 노릇하던 옷의 역할에도 변화가 왔다. 입만 뵙듯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명언이 되었다는 전설의 코코 샤넬(고양이 아님) 선생은 일찍이 “아름다움은 당신이 당신다워지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된다(Beauty begins the moment you decide to be yourself).”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계급이 아닌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옷을 입기 시작했다. 사회 위계적 함의를 지닌 문질빈빈이 아닌, 지극히 사적인 차원의 문질빈빈이 옷을 통해 구현되리란 희망이 싹튼 것이다.

그런데 말이니까 말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개성을 중요시해서 모두 자신의 개성을 듬뿍 담아 옷을 사방사방하게 입는답니다. 끝~!'할 수가 없다. 뭔가 개운치가 않다.

미디어에는 패셔니스타가 넘쳐난다. 북적이는 거리에 나서면 여기저기 간지간지 간지 천국이다. 그런데, 그들을 두고 개성을 논하기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다시 한 번 입만 뺏갓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명언이 되었다는 전설의 코코 샤넬(고양이 아님) 선생은 "시방 패션은 가도 스타일은 영원한 것이여(Fashion fades, but style is eternal)!"라 말씀하셨다. 자의적 해석을 마구 첨가해 좀 극단적으로 썰을 풀자면, 그거다! 재네들에겐 스파일이 없다!

우리 털 없는 항은 동물에게 의(衣)는 생존 필수 요소다. 없으면 돼진다. 때문에 산업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필히 옷을 소비해야한다. 생산자,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소비자들이 이 옷이라는 것을 그저 생존수단으로만 여긴다면 판매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고로 그들은 옷이 자기표현, 자기과시의 수단임을 널리 알리고 그 방법론을 전파한다. 여기서 잠깐! 근대 이후 개인들의 개성에 대한 갈망은 분명 발생했고 커졌다. 하지만 이들을 시민, 국민으로 키운 근대의 교육은 철저히 몰개성을 지향했으며 자본의 꼬봉 노릇을 통해 개성을 성취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줬다. 현대의 우리에게 스스로를 성찰할 능력이 미비하다.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서툴 수밖에 없다. 옷에서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사람들은 옷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론을 별 의심 없이 쫓는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 방법론에게 한 철을 넘겨 살지 못하도록 나팔수들을 동원해 시한부 선고를 내린다. 사람들이 기능상 전혀 하자 없는 옷들을 쓰레기통에 처 박고, 매 해마다 새로운 옷을 소비하도록 한다. 이들에겐 무조건 적은 비용으로 많이 만들어 많이 파는 게 장땡이다. 그렇다면 열 가지 옷을 열 개 만들어 파는 것보다, 한 가지 옷을 열 개 만들어 파는 게 개이득이다. 소위 트렌드라는 걸 만들어 조장해 생산의 편리를 도모한다. 이게 패션이다, 패션산업의 속내다.

양반이니 상놈이니 따지던 시대가 어처구니없어 보이는 이유, 너무 빨리 쇼부났기 때문이다. 플레이어의 의지, 노력 여하와는 무관하게 그냥 세상에 나오자마자 승자와 패자가 정해지는 시스템! 이게 너무나 불공평하고 극차별적이라 어처구니가 없는 거다. 그런데 말이니까 말이다, 이 페어하지 못한 게임이 몇몇 변칙을 부러가며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래, 더 이상 양반 상놈은 없다! 그러나 권력과 명예를 몰고 다니는 찌를 가진 놈과 못 가진 놈은 있다. 뭐, 자본이 지배하는 경쟁 사회에서는 부득이한 현상이라, 나름의 순기능도 있으리라 자위하자! 그런데 문제는 찌와 그의 친구들이 과거의 신분처럼 대를 이어 세습되고 있다는 거다. 아무렇지 않게, 더욱 은밀하게 계층이 형성되고 있는 거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구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빛이 아닌 차림새를 보고 그 은밀한 계층을 파악한다.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어떤 백을 들고 다니는지, 어떤 시계를 손목에 돌렸는지, 어떤 옷을 걸쳤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곤 반응한다. 보임을 통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런 현대의 문(文)이 신분상승의 욕망을 투영하기도,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소소한 비유 들자면, 대학생들, 특히 이름 좀 있는 학교 학생들이 커다랗게 학교 이름 새겨진 과잠 입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심리 아닐까 싶다. 좌우지간에 이제는 땅속 깊숙이 묻혀 있으리라 여겼던 옷의 전근대적 역할, 즉 사회 계층을 구분지어 주던 시각적 나팔수 역할이 유령처럼 우리 곁을 떠돌고 있는 거다. 이런 맥락에서 이 세상에 패션이 넘쳐날진 몰라도 스파일은 없다. 진짜 스타일은 개성의 발로다. 민주의 가시적 완성이다. 나는 나답고, 너가 너다운 거, 저 자식은 딱 저 자식 같은 걸 짜잔~ 하고 보여주는 게 스타일이다. 민주사회의 착한 문질빈빈이다.